Methodological Problems of Bibliographical Arrangement of Materials in Korean Language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李 載 喆
延世大圖書館學科 敎授

Ⅰ. 머리말

최근 문헌자료의 서지적 정리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가는 경향에 있다. 분류법에 있어 UDC(국제십진분류법)의 출현과, 목록법에 있어 ICCP(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의 목록원칙 제정이나 ISBD(국제표준서지기술규범)의 출현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서지적 정리법은 방법론에 있어 국제성이 강하면서도, 실제면에서는 지역성(locality)이 크게 작용하는 학문의 하나이다. 서지적 정리는 그 대상이 되는 자료의 내용과 형태, 쓰여진 언어 및 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서지 목록의 이용자가 쓰는 언어, 문자의 구조, 그들의 사고방식 및 검색습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한국어로 쓰인 자료의 서지적 정리방식에 있어서 서구의 그것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비교 검토하고, 한국의 서지 목록계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몇가지 들어서 그의 해결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는것이다.

Ⅱ. 전통적 한국목록체계의 특이성과 그 배경

한국의 전통적 목록의 체계는 논리적이며 장유유서적 순차로만 검색을 가능케하는 분류순의 단일기입목록(single entry catalog)체계였다. 저록(著錄)의 배열은 먼저 논리적 분류순에 의해서 하고 동일분류항목내에서는 대체로 장유유서적으로 배열하되 주석서, 언해서 등의 관련저작은 원저서와 함께 놓는 아주 체계적인것이었다. 같은 분류목록체계이되, 서구의 기원전 3세기의 목록 피나케스(Pinakes)가 동일분류항목내에서 저록을 저자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한것과 비해, 한국의 그것은 각 저록을 서명아래 기입하였으되 같은 항목내에서 자순 또는 자모순으로 배열하지 아니하고 장유유서적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던것이다.

분류목록에 대한 저자와/나 서명색인도 없었으며 자모순의 독립된 저자목록과/이나 서명목록도 없었다. 20세기 초엽까지의 목록에서는 논리적 분류순차에 의한 검색만 가능했고 자순(자모순)에 의한 접근은 전혀 배려되지 않았던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자순배열의 목록색인이 개발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은 기입문자인 한자의 배열난이었다고 보여진다. 수만자에 달하는 한자에 접하였을 때 그들은 감히 그것을 배열의 눈금으로 삼으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것이며, 자연히 다른 가능성을 찾았을것이다.

1443년 한글이 창제 공포된 이후에도 사오백년 동안 자모순검색법은 개발되지 못했다. 그것은 한글사용이 보급되지 못하고 여전히 한자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인것으로 안다. 역사적으로 한글자모순검색법은 1751년 홍계희(洪啓禧)에 의해 그길이 트였다. 그는 그의 저서 삼운성휘(三韻聲彙)에서 동운(同韻)내의 다른 글자를 한글의 자음으로 배열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첫 단계부터의 검색이 아니고 절차상 먼저 운순에 의해 검색한 다음의 일이며 모음을 포함하지 않은 자음만의 부분적 자모순배열법이었다.

본격적인 한글의 자모순배열법은 한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에 의해 개발되었다. 1880년 프랑스선교단이 편간한 한불자전(韓佛字典)이 그 효시이다. 로마자의 자모순검색이 몸에 젖은 그들로서 한국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올림말로 내세워 그것을 한글의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연스런 일이었을것이다. 비록 거기에 채용된 한글자모의 순차가 한국의 전통적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로마자음에 맞추어져 변경된바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한글의 자모순검색이란 새로운 검색방법을 한국인에게 알려준 공헌은 지대한바 있는것이다.

목록의 저록배열에 한글의 자모순배열이 적용되기는 1910년대초의 일이다. 1911년경에 편간된것으로 믿어

지는 국서음휘(國書音彙)의 저록들이 첫음절에 한해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는것이다. 도서관목록에 한글의 자모순법이 적용되기는 문헌적으로 1938년의 일이다. 1938년에 편간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신서부분류목록 조선문학 소설항목내의 서명배열에서 그 실례를 본다. 그러나 동 도서관은 창립 초창기부터 카드식분류목록과 서명목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실제의 적용년은 그 창립년인 1923년에 올라갈수 있으며, 이범승(李範昇)에 의해 경성도서관이 1920년에 창립되었던 점으로 보아 1920년까지 소급할수 있지 않을가 한다.

상술한바와 같이 한국서지목록의 발달사상 서명에 의한 한국자모순배열이 시도된것은 1910년대부터 1920년대초기의 일이다. 이에 비해서 저자명에 의한 한글자모순배열은 서명의 경우보다 약 30년 뒤떨어진 1954년에 비롯된다. 고재창(高在昶)이 한국은행도서실의 목록자로 있을때 그방식을 동도서관에 도입한것이 그 효시가 되는 것이다.

Ⅲ. 한국에서의 분류법

한국목록계에서 1910년대 이전에 가장 대표적이며 많이 채용하였던 분류법은 四부분류법이다. 동분류법은 7세기초에 중국의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에서 확립된것인데 한국에서 이를 도입하여 도서정리에 적용한것은, 문헌상 좀 애매하게는 12세기초, 확실하게는 15세기 중엽의 일로 적혀 있다. 이 四분법은 1920년이후 서구학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십진분류법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고서집서에 한해서는 이법에 의해 분류하고 있는 도서관이 적지안히 있다.

현금 한국도서관에서 가장 널리 채용하고 있는 분류법은 한국십진분류법(KDC)과 듀이십진분류법(DDC)이다. 전자는 1964년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편간되어 주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고, 후자는 1921년에 도입되어 주로 대학도서관과 특수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다. 좀 묵은 통계이긴 하지만 DDC는 1966년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72.7%(100관중 80관), 특수도서관에서 34.6%(81관중 28관), 공공도서관에서 20% (53관중 11관) 중고등학교도서관에서 27.9%(791관중 221관)가 채용하고 있다.[1]

박봉석(朴奉石)의 조선십진분류표(1947, KDC)는 1950년대 중반이전에 가장 많이 채용되었던 분류법이다. 이밖에 한은도서분류법(1954), 국연십진분류표(1958, 국연은 국방연구원의 약칭) 등 자체분류법을 쓰고 있는 도서관이 몇관 있으며, UDC와 LCC를 채용하고 있는 이공계(理工系) 특수도서관들도 수관 있다.

그러나 그어느것도 한국에 관한 주제전개인 한 도협의 한십분법(KDC)이나 박봉석의 조십분표(KDC)보다 더 세분된것은 없다.

Ⅳ. 한국에 있어서 자모순 주제목록과 색인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서지 목록에서 한글자모순의 주제명목록, 사전체목록 또는 분류목록에 대한 주제색인은 보기 드물다. 도협의 전국도서관실태조사(1971)의 보고에 의하면 주제명기입은 학교도서관의 11.6%(262관)만이 마련하고 있고, 분류목록에 대한 주제명색인은 대학도서관의 12.3%(7관)만이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주제접근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동원하는것이 의례 당연한 일로 되어 있는것이다.

자모순주제검색 즉 주제명기입은 찾고자하는 특정한 주제명(좁은 주제명)만을 우선 생각하고 그상위개념의 주제를 고려에 넣지 않는 검색법(기입법)인데,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상위개념의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그 특정한 주제를 찾는것이다.

수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말의 순차(語順)는 강조의 순차라 하며, 언어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구조는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의 구조적 특질에 의하여 특질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한국어의 주소나 단체명이나 인명의 어순은 서양의 그것과 정반대로, 상위단위어(넓은주제) 또는 실질적인 말을 먼저 놓고 하위단위어(좁은주제, 즉 특정주제) 또는 형식적인 말을 나중에 놓는다.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서양인의 그것과는 정반대로 특정한것 보다 그것을 내포하는 좀더 넓은것을 먼저 생각하며 중요시하는것이다. 한자의 배열난이 논리적 검색법을 낫게 했다면 상하위순의 사고방식은 단계적 검색법을 발견시키는 요인이 되었을것이다. 문자나 언어의 차이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능성의 차이를 가져오는수가 있는것이다. 한편, 한국어로 된 주제명표목표로서는 필자의것(1961)과, 도협의 주제표목표 국민학교용(1967) 및 중등학교용(1968)이 있으며, 실제로 주제명기입을 한 사전체의 목록과 색인류로는, 한국교육목록, 한국행정색인, 학술잡지색인, 연세대학교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숙명여자대학교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동아일보색인 등이 있다.

Ⅴ. 한국목록에 있어서 저자와 서명의 선기입론 (先記入論)

1961년 ICCP에서 국제적 목록기입통일안이 채택되기전까지 세계의 재래 목록기입방식에는 크게 세가지

1) 이재철. "한국에 있어서 듀이십진분류법", 국회도서관보, 4권7호(1967년 7월), p.5—6.

갈래의것이 있었다. 하나는 중국계의것이고 또하나는 영미계의것이며 또다른것은 독일계의것이다. 중국계의 것이 서명선기입의 목록법인데 대하여 나머지 두가지는 저자선기입의 목록법이며, 영미계의것이 단체저자 기입을 인정하는데 대해 독일계의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서명기입을 하는것이 특이점이다.

한국의 재래목록기입법은 중국계에 속하는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란을 계기로 영미계의 목록법이 양서에와 더불어 동서(한, 중, 일서)에도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정식으로 나라의 표준적 목록법으로 채택되고 말았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몇가지의 목록규범중 서명선기입을 채택한 목록규범의 대표적인것은 박봉석(朴奉石)의 조선동서편목규칙(초안 1946년, 초판 1948년)이며, 저자선기입법을 채택한 것은 도협의 한국목록규칙(초안 1962, 초판 1964, 수정개정판 1966)이다.

저자선기입의 한국목록규칙이 공표된 후에도 서명선기입의 목록과 색인류가 저자선기입의 그것에 못지않게 여전히 나오고 있음을 본다. 아래에 그 서명을 적는다.

奎章閣圖書韓國本目錄 (1965)
澗松文庫漢籍目錄 (1967)
韓國史研究論文總目錄 (1967, 1970)
韓國古書綜合目錄 (1968)
在佛韓國關係文獻目錄 (1969, 국회도서관 刊)
李朝書院文庫目錄 (1969)
서울종로도서관 장서목록 (고서해제편, 1970)
建國大學校中央圖書館 漢籍目錄 (1971)
한국은행도서실 도서목록 (고서편, 1971)
韓國圖書解題 (1971)
총무처 중앙행정도서관 한서목록 (1971)
구한말간행물목록 (1972, 국회도서관간)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1972)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1974)

또 고려대학교도서관의 石洲文庫目錄, 薪菴文庫目錄 海史文庫目錄, 景和堂文庫目錄은, 올림말은 저자명기입을 해놓고 실제의 배열은 서명순으로 배열한 목록이다.

이상과 같은 서명선기입목록의 편간은 그목록규범에서 정통(正統)의 자리를 앗아간 저자선기입법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며, 말대신 행동으로의 반대로 간주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것이다.

서명과 저장명(인명)중에 하나만을 도서식별의 요소로 택일한다면 바꾸어 말하여 서명다음에 저자명표시를 생략하거나 저자명(인명)다음에 서명기재를 생략하기로 말한다면 어느 요소가 그도서를 식별하는데 가장 낫겠는가 하는것이 기본기입선정의 기준이 될수 있지 않을가 하는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한국이나 중국의 고목록에서는 저자의 표시가 그 저작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그의 기입에 있어 저자명기재를 생략하고 있는 예를 많이 보는데, 만약 서명이 명기되어 있는 저작에 대해 저자명기재만 하고 서명의 기재를 생략해서 목록을 만들수 있을가 하는 질문인것이다.

인물사전(인명사전)이나 인명록류에서 인명이 올림말로 내세워지는것이 당연한 이치인것처럼, 저작사전(예 : 명저사전)이나 도서목록에서 서명이 올림말로 내세워지는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인명이 고유명사이듯이 서명도 고유명사이다. 언어의 역사상, 고유명사는 보통명사보다 후차적으로 발달한다. 도서는 인간에 의한 소산인 만큼 서명의 발달은 인명의 발달보다 나중의 일이다. 서명이 고유명사화되기까지는, 바꾸어 말하여 한 저작에 어떤 고유한 이름이 명명되기전까지는 그 저작의 식별을 지은이의 이름(저자명)에 의해 하였을것이다. 중국의 고전명에 저자명과 서명이 똑같은 예를 가끔 보는데(예 : 孟子, 莊子 抱朴子, 등) 그것은 그 도서들이 처음 편목될 당시 고유한 서명이 붙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고대목록자가 저자명(귀의된 저자명 포함)에 의해 기입한것에서 연유한것이다.

따라서 서명기입은, 목록발달상 저자기입보다 한걸음 더 발달한 형태이며, 목록이론상 저작에의 직접 접근책이란 점에서 저자명을 한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저작에 접근하는 서양의 저자기입보다 우위에 선다고 말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것이다.

Ⅵ. 올림말로서의 한국인명의 형식론

한국인명은 성과 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어의 대화나 문장에서 한국인명은, 극소수의 서양화한 예명(藝名)을 예외로 하고, 언제나 성과 명의 순차로 불리우고 표시된다. 한국어로 쓰인 자료의 표제지상에서도 그런 순차로 저자명이 표시된다. 바꾸어 말하여 한국인명이 한글이나 한자로 적히우는 경우, 그것은 성과 명의 순차로 쓰이는것이 정상인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명이 로마자로 쓰일 경우는 그 순차나 형식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원형 그대로 성과 명의 순으로 적는수도 있고, 서양화하여 명과 성의 순으로 뒤바꾸어 적는수도 있다. 또 후자의 경우는 언제나 명과 성간에 콤마를 치지 않고 표시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성과 명사이에 콤마없이 표시하는수도 있고 콤마를 적어 표시하는수도 있다. 이러한 한국인명의 순차는, 인명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류나 인명록을 예외로 하고, 서양어에서나 한국에서나 또는 로마자형으로나 한글형으로나 불문하고 언제나 원형을 지켜 명과 성의

순차로 불리우고 표시되는 서양인명의 경우와 비해 대조적이다.

한국어로 쓰인 각종 사전과 인명록류에서 취하고 있는 한국인명에 대한 올림말의 형식은 모두 원형대로 직순기입하고, 성과 명사이에 콤마를 찍지 않고 있다. 각종 목록과 색인류에서도 1950년대 말기까지는 모두 그러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일부 도서관인이 도서목록의 올림말에 한국인명의 성명간에 콤마를 찍는 방식을 도입하더니, 이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거치는 일도 없이, 마침내는 그 방식을 나라의 표준규범인 한국목록규칙에 채택시키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반대하고 그의 시정을 촉구해왔다.[2] 필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것이었다.

가) 서양인명의 올림말에서 성과 명간에 콤마를 찍음은 명·성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명의 순으로 도치시켰을 때 그 표시로 찍는 것인데, 한국인명은 원래 성·명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직순기입을 하게되어 그런 표시의 필요가 없다.

나) 올림말의 두 요소간에 콤마를 찍음은, 콤마이후의 부차적 요소를 빼어도 콤마이전의 첫번째 요소가 기본요소로서의 독립성과 통용성(potency)을 가져야 하는데—마치 원괄호로 묶인 부분을 빼어도 그앞의 요소가 독립성과 통용성을 갖듯이—, 한국어에서 한국의 성과 명사이에 콤마를 찍을 경우 그렇지 못하다.

예 : Salem, New Jersey	Salem (New Jersey)
Salem, Ohio	Salem (Ohio)
Lincoln, Abraham	Lincoln (Abraham)
링컨, 에이브러험	링컨(에이브러험)
광주, 경기도	광주(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전라도)
비교 :	
김, 구	김(구)
김, 유신	김(유신)

다) ALA규칙이나 AACR에서 한국인명의 성과 명사이에 콤만를 찍어 올림말의 형식을 잡도록 규정한것은 한국인명이 로마자로 쓰일 경우, 성·명 순으로 적기도 하고 명·성 순으로 적기도 하여 성과 명의 순차에 혼동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수단에서였을것이며, 영어 사용국의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속의 한국성이 독립성과 통용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올림말의 인명구조는 그 이름 소유자의 국어사전의 일반적 관용에 따르도록 한 목록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것이다. 다만 영어사용인의 이용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할수 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에 어느정도 이해가 갈뿐이다.

한국에서, 한때 한국인명의 성과, 명사이에 콤마를 찍기를 주장했던 인사중에서 최근 그 주장을 버리고 필자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하게 된이를 많이 본다. 콤마를 찍어오다가 안찍기로 전환한 도서관은 더욱 많다. 아직 콤마를 찍고 있는 도서관들도 실제 올림말의 배열시에 그것을 배열의 눈금으로 삼고 있는 도서관은 극히 드문 실정인것이다.

Ⅶ. 맺는말

서지 목록법에 있어서 국제적 표준화는 곧 서양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영미의 방식을 추종하는것은 아니다. 이는 국제간에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작업임과 동시에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서로 받아드리는 방향에서 통일을 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지 목록어는 언어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그것은 그나라 어법과 표현방식과 문자생활과 사전검색의 습성과 합치되는것이야지 그와 동떨어지게 할수 없는 것이다. 만들어진 서지 목록은, 결국, 이용자의것이기 때문이다.

2) 이재철,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 人文科學(延世大), 18輯(1967년 12월), p.65—92.
——,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의 연구", 圖書館學(韓國圖書館學會), 1輯(1970년), p.24—46(Ⅳ장 목록기입에서 동양인명의 성명간에 콤마찍는 문제와 이에 따른 저자기호표 구조의 문제)

「도협월보」 원고모집

도협월보는 會員들 相互間의 情報交換과 學術發表 討論의 廣場으로서 활발히 利用되어져야 하겠읍니다. 앞으로 會員 相互間의 情報交換을 위한 紙面을 大幅 늘이는 한편 圖書館專門誌로서의 面貌를 갖추어 會員들에게 보다 親密感을 줄 수 있도록 編輯할 計劃입니다.

이에 會員 여러 분들의 聲援을 바라며 다음 要領으로 積極 投稿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內　容 : 圖書館學 및 運營實務 硏究論文과 會員人事소식, 뉴우스, 館界動向 其他 본 월보에 揭載할 수 있는 內容의 글.

原稿枚數 : 30~50枚 內外(200字 원고지)

보 낼 곳 : 協會 事務局